SoLA 2025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25 Spring Congress on Lipid and Atherosclerosis of KSoLA

2025년 4월 5일(토) 서울드래곤시티 컨벤션센터 3층 한라홀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이른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 전, 우리는 서울드래곤시티 컨벤션센터로 향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조찬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학술대회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좌장이신 이문규 교수님(BreakfastSymposium1)'에서의 발표는 하루의 시작을 충분히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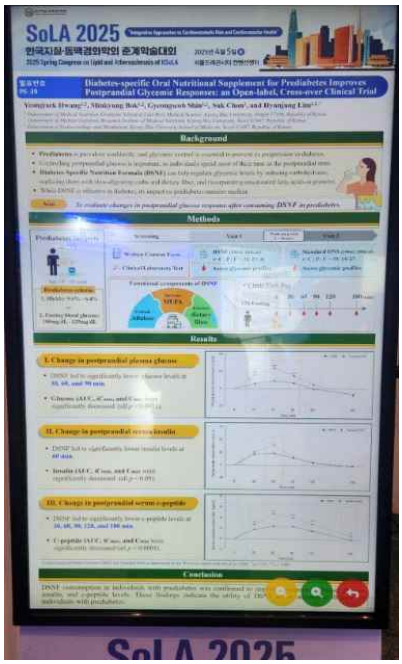
이날 학회에는 직장 동료인 보건관리자 선생님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는데, 평소에는 업무 상으로만 대화하던 사이였지만, 학문적 관심사를 공유하며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을 함께 탐색하며 어느새 동료 이상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값진 것 같다.

본격적인 학술대회는 8시 30분부터 다양한 심포지엄으로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프로그램은 단연 Symposium 4 'AI와 ChatGPT를 활용한 연구와 논문 작성의 실질적 접근' 이었다.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의료 및 영양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사례와 실용적인 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발표자들은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논문 작성 및 데이터 시각화 과정에서 ChatGPT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생생하게 공유해 주었다. 특히 ChatGPT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자동화와 시각화 도구 연결 사례는 앞으로 나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바로 활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실용적이었다.

나는 Mini-OralPresentation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발표 주제는 “Analysis of workplace dietary habits and improvement strategies based on the nutrition quotient for adults (NQ)”였으며, 이는 실제 병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발표였다. 연구 배경, 설문도구로서의 NQ 활용, 그리고 개선 전략에 이르기까지 7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핵심을 압축해 전달하려 노력했다. 발표 후, 몇몇 참가자들은 다가와 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고, 비슷한 관심을 가진 타 분야 전문가들과도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다른 발표자들의 연구도 수준 높고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아, 듣는 내내 메모가 끊이질 않았다.

비록 서울에는 하루 종일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학술대회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해보다 뜨겁고 활기찼다. 참가자들의 열정, 강연자들의 깊이 있는 전달력, 그리고 탄탄한 프로그램 구성이 어우러져 진정한 학문의 축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오후 세션에서는 먼저 Symposium 15 '심대사질환에서의 생활의학 전략'에 참석하였다. 이 세션에서는 사회적 관계망, 신체활동 전략, 아동기의 경험과 섭식행동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심대사질환을 다뤘는데, 특히 부산대학교 윤여선 교수님의 발표가 인상 깊었다. 아동기 섭식행동과 비만 예방의 연계성을 다룬 부분은, 병원 급식 영양사로서 내가 환자 및 직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안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이후에는 Room 2에서 열린 Symposium 17 '지질 및 심혈관 질환 관리를 위한 정밀영양학' 세션에 참여하였다. 이 세션은 최근 트렌드인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맞춤형 영양 전략, 장내 미생물과 대사질환의 관계, 그리고 최신 데이터 분석기법을 포함한 정밀영양학적 접근을 다뤘다. 특히 세종대학교 박동현 교수의

발표에서는 LLM(대형언어모델)을 활용한 대사질환 데이터 분석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AI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연구의 본질을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좀 어렵긴 했다(**)
이날 학회의 마지막은 폐회식 참석으로 마무리되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일정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생기 있고 활기찬 느낌이었다. 오전 조찬부터 마지막 폐회식까지 단 한 순간도 헛되이 느껴지지 않았고, 하루를 온전히 학문과 열정에 몰입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학회는 나에게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준 자리였다. 'AI와 영양', '정밀영양학', '직장인의 식생활 개선'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통해 내 연구의 방향성과 영양사의 역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 또한 다른 발표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나의 관점을 넓힐 수 있었고, 연구에 대한 동기 부여도 다시금 새롭게 되었다.
2026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부산이라는 친숙한 공간에서, 또다시 전국 각지의 전문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대감이 차오른다. 다음 학회에서도 더 성숙한 연구자로, 더 실천적인 영양사로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